

## 끝내기 안타로 예열 마친 강백호, 한화 이적 후 첫 홈런 폭발

등록 2026.03.29 15:18:50



[서울=뉴시스]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강백호. (사진=한화 제공). 2026.03.28. \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박윤서 기자 =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끝내기 안타를 날리며 한화 이글스에 승리를 안겼던 강백호가 이적 후 첫 홈런을 폭발했다.

강백호는 29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2026 신한 쏘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 5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3회 홈런을 쳤다.

2회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던 강백호는 두 번째 타석에서 호쾌한 스윙으로 대포를 폭발했다.

한화가 3-2로 앞선 3회말 무사 1루에서 타석에 들어선 강백호는 키움 선발 하영민의 초구 포크볼을 통타해 좌중간 담장을 넘어가는 2점 홈런을 터트렸다.

지난 시즌이 끝난 뒤 프리에이전트(FA) 자격을 얻었던 강백호는 지난해 11월 한화와 4년, 최대 100억원에 계약하며 유니폼을 갈아입었다.

전날(28일) 열린 키움과의 개막전 연장 11회말에서 끝내기 안타를 날렸던 강백호는 이날 이적 이후 쓰아 올린 첫 홈런으로 쾌조의 타격감을 이어갔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donotforget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